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일본 금융청, 솔벤시 마진 비율 산정 엄격화

- 일본 금융청은 최근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솔벤시 마진 (solvency margin) 비율 산정을 현행보다 엄격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함.
- 금융청은 작년 10월에 파산한 다이와생명이 같은 해 3월 솔벤시 마진 비율이 정부 제재 기준인 200%를 훨씬 웃도는 555%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결국 파산에 이른 것은 현행 솔벤시 마진 비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짓고 자금산업 제한 및 위험측정 기준의 엄격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공표함.

솔벤시 마진 비율 검토 개정(안) 주요 내용

항목	주요 내용
자금산업의 엄격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책임준비금 일부(보험료 적립금 등의 잉여 부분)의 자금산업에 제한을 두어 솔벤시 마진 비율 인상을 목적으로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- 부채가능 자금조달 수단 등과 합산해 핵심지불여력(core margin)을 초과 산입할 수 없게 엄격히 제한 -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지불여력(margin)에 대해서도 산입할 수 있는 자금 종류를 제한
위험측정의 엄격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격변동이 심해 가치폭락 위험성이 상존하는 증권화상품과 CDS 같은 금융 파생상품에 대해서 위험계수를 재설정하는 등 손실발생 위험성을 보다 정밀하게 계산 - 지진보험의 위험측정을 현실화 · 정교화
솔벤시 마진 비율의 적정성 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솔벤시 마진 비율 산정에 있어서 보험계리사의 확인 사항을 추가

자료: 일본 금융청 홈페이지(www.fsa.go.jp) 관련 보도 자료를 요약

- 개정안에 근거해 새롭게 솔벤시 마진 비율을 산출할 경우, 생명보험회사들은 현재 500~1,000%에 달하는 비율(2009년 3월 기준 메이지야스다생명: 1,098%, 니혼생명: 904%, 미츠이생명: 602%, 아사히생명: 583%(생보업계 최저 수준))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, 상대적으로 손실위험이 작은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들 역시 약 30% 이상 감소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음.
- 금융청은 각 계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연말까지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보험업계가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12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.

(일본 금융청 홈페이지 · 아사히신문, 8/29)